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 현황 실태 조사



수강과목

사 분 석 실 습

담당교수

설 동 훈

제출일자

2015. 06. 22

200926020

찬

3조

사회학과 201311839 임 수 연

목 차

I. 서론	3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표본의 구성	
3) 연구 가설 설정	
4) 분석 방법	
II. 본론	6
1.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인구·사회학적 분석	
1) 아르바이트 경험 & 시기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고려사항	
3) 아르바이트 업종	
4)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5)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	
6) 부당 처우 및 그에 대한 행동 유무	
2.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	
1) 현행 노동법의 인지 정도	
III. 결론	16
1. 연구 결론	
2. 조사의 한계	
IV. 참고 문헌	18

I. 서론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아르바이트(Arbeit)는 독일어로 일반적인 뜻의 ‘일, 직장, 노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¹⁾ 이는 곧 부업(part-time job)뿐만 아니라 본업(full-time job)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본업이 아닌 부업 즉 ‘정식 일자리가 아닌 곳에서 시간당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일’ 또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의 의미로 part-time job만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알바’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은 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직장인들은 자신의 본업 외에 별도의 추가적 수입을 얻기 위함으로,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아르바이트가 행해지고 있다.²⁾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비중을 따져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 그중에서도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난 후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소비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기존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중심의 노동시장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형성하였고, 취업난이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임시직, 시간제 근로, 인턴 제도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연구는 많으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 실태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 또는 관련 기관이나 사설 기관에서 적은 표본 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또 대학 생활 적응이나 직업의식, 아르바이트를 통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증가하는 아르바이트와 비례하여 폭언·폭행 및 성희롱, 성폭행,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 방안이 제한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미비한 것이 오늘날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에 있어 문제를 확

1) ,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2012. 대구·경북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평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논집 10권 1호. pp111-112.

2) 박현숙, 권혁만. 2009. 단시간 근로자의 실태와 효율적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2권 1호. p51.

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 대학생들의 전반적 근로 현황 실태와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가의 유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노동법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고, 이 인지 정도에 따른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학업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시간제 활동(part-time job)’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때, 보수를 받고 했던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표본의 구성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총 5일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 현황 실태를 알아보고,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와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할당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구분에 의한 성별과 연령, 일반적 특성에 의한 대학, 학년, 전공 구분으로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표본의 숫자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일관적이지 않은 표본과 응답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72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표본의 구성

[표 1] 인구통계학적 표본 특성

		(단위 : 명, %)	
표본특성표	표본특징	응답	구성비(%)
성 별	남	369	51.2
	여	350	48.5
	결측값	2	0.3
	합계(N)	721	100
연 령	19~20세	144	20.0
	21~22세	242	33.6
	23~24세	192	26.6
	25~26세	91	12.6
	27세 이상	50	6.9
	결측값	2	0.3
	합계(N)	721	100

[표 2] 대학별 표집 인원

표본특성표	표본특징	응답	(단위 : 명, %)
			구성비(%)
대 학	전북대	79	11
	경북대	57	7.9
	부산대	56	7.8
	경상대	60	8.3
	충남대	59	8.2
	한남대	56	7.8
	고려대	56	7.8
	연세대	75	10.4
	홍익대	55	7.6
	서울대	56	7.8
	서울과기대	28	3.9
	경희대	28	3.9
	용인대	56	7.8
	합계(N)	721	100

[표 3] 전공별 표집 인원

표본특성표	표본특징	응답	(단위 : 명, %)
			구성비(%)
전공	인문사회계열	325	45.1
	이공계열	365	50.6
	예체능계열	29	4.0
	결측값	2	0.3
	합계(N)	721	100

[표 4] 학년별 표집 인원

표본특성표	표본특징	응답	(단위 : 명, %)
			구성비(%)
학년	1학년	176	24.4
	2학년	185	25.7
	3학년	158	21.9
	4학년 이상	200	27.7
	결측값	2	0.3
	합계(N)	721	100

3) 연구 가설 설정(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의 차이가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첫 번째 연구 가설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와 두 번째 가설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의 차이가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밝히려 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검정)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별, 학년별, 대학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대학별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의 분석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 사립 대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며, 가정의 경제수준³⁾별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들의 분석은 가정의 한 달 평균 수입과 자신의 한 달 평균 수입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균을 낼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의 응답을 기초로 중층(중간소득)을 구한다. 이 중층을 통해서 중간소득의 3분의 1 이하를 하층(저소득), 3분의 1 이상을 상층(고소득)으로 정의하여 경제수준별 차이를 구분하였다. 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구성하는데 있어 생활수준은 개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생활수준의 구분이 다르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중층에 응답하여 통계 분석에 혼란을 주는 점을 방지하고자 제외하였다. 또한 현행 노동법의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현행 노동법에 관한 10가지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의 합을 현행 노동법의 인지 정도의 평균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II. 본 론

1.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인구사회학적 분석

1) 아르바이트 경험 & 시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과 대학을 제외한 연령($\chi^2 = 53.227, d.f = 4, *p < .05$), 학년($\chi^2 = 47.082, d.f = 3, *p < .05$), 가정의 경제수준($\chi^2 = 10.705, d.f = 2, *p < .05$)에서 집단 간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시기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3) , 남진열. 2012.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탐라문화> 41권 0호. pp126.

가 나타난다.

[표 5] 연령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					
아르바이트 경험*연령	19~20	21~22세	23~24세	25~26	27 이상	Total	
있 다	54.9	80.2	80.7	88.2	92.3	76.9	
없 다	45.1	19.8	19.3	11.8	7.7	23.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53.227, d.f = 4, *p < .05$

[표 6] 학년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				
경험*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	Total	
다	59.1	77.8	88.6	82.4	76.9	
없 다	40.9	22.2	11.4	17.6	23.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chi^2 = 47.082, d.f = 3, *p < .05$

[그래프 1] 아르바이트 경험(회)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76.9%로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⁴⁾ 과반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 1]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에 있어서 1~2회가 46.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4회가 33.3%, 5~6회가 12.6%, 9~10회가 3.8%, 7~8회가 2.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연령별(n=718), 학년별(n=718), 가정의 경제수준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표 5]의 연령별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는 전 연령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세가 54.9%로 가장 낮은 비율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7세 이상은 9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을 한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의 학년별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 역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의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 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4권 2호. p150.

[표 7] 가정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				
아르바이트 경험*가정 경제수준	하층	중층	상층	Total
있 다	86.3	76.1	69.0	76.9
없 다	13.7	23.9	31.0	23.1
합 계	100	100	100	100

$\chi^2 = 10.705, d.f = 2, *p < .05$

[표 8] 가정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시기

(단위 : %)				
아르바이트 시기*가정 경제수준	하층	중층	상층	Total
고등학교 입학 전	3.5	2.3	8.8	3.5
고등학생(수능 이전)	9.7	10.5	5.0	9.5
수능 이후~대학 입학 전	51.3	56.1	42.5	53.1
대학 입학 후	35.4	31.1	43.8	33.9
합 계	100	100	100	100

$\chi^2 = 15.125, d.f = 6, *p < .05$

가정의 경제수준(n=699)별로는 하층이 86.3%, 중층이 76.1%, 상층이 69.0%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능 이후~대학 입학 전’이 53.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학입학 후’ 33.9%, ‘고등학생(수능 이전)’ 9.5%, ‘고등학교 입학 전’ 3.5%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와 가정의 경제수준(n=537)을 살펴보면, 하층, 중층, 상층 모두 ‘수능 이후~대학 입학 전’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입학 후’를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하층과 중층에서는 ‘고등학생(수능 이전)’의 응답이 각각 9.7%, 10.5%로 ‘고등학교 입학 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상층은 ‘고등학교 입학 전’의 응답이 8.8%로 ‘고등학생(수능 이전)’의 응답 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고등학생 시기보다 수능 이후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또 사회에 나온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과 시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고려사항

5) , 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오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권0호. pp45-46.

[표 9] 성별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 %)

아르바이트 이유 * 성별	남 성	성	Total
생활비 마련	15.3	9.5	12.4
마련	58.9	69.1	63.8
등록금 마련	3.3	2.6	2.9
구입 경비 마련	3.5	3.4	3.5
여행 경비 마련	6.3	7.7	7.0
다양한 경험 축적	10.3	6.0	8.2
시간 활용	1.6	1.7	1.7
기 타	0.8	0	0.4
합 계	100	100	100

$\chi^2 = 15.556, d.f = 7, *p < .05$

[표 10] 가정의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 %)

아르바이트 이유 * 가정 경제수준	하층	중층	상층	Total
생활비 마련	20.0	11.5	5.2	12.1
용돈 마련	66.2	63.9	61.7	64.0
등록금 마련	3.8	2.4	4.3	3.0
물품 구입 경비 마련	1.5	3.8	4.3	3.4
여행 경비 마련	2.3	8.4	6.1	6.9
다양한 경험 축적	4.6	8.0	14.8	8.5
시간 활용	0.8	1.8	2.6	1.7
기 타	0.8	0.2	0.9	0.4
합 계	100	100	100	100

$\chi^2 = 15.274, d.f = 7, *p < .05$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이 63.8%로 가장 높은 응답⁶⁾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이 12.4%, 다양한 경험 축적이 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의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이유(n=716)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용돈 마련’이 각각 58.9%, 69.1%, ‘생활비 마련’이 각각 15.3%,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은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경험 축적’ (10.3%)인 것에 비해 여성은 ‘여행 경비 마련’ (7.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10]은 가정의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n=697)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용돈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용돈 마련(66.2%→63.9%→61.7%)과 생활비 마련(20.0%→11.5%→5.2%)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 축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4.6%→8.0%→14.8%)이다.

6) . 2012. 아르바이트 관련 보고서.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3호. p353.

[표 11] 성별 아르바이트 고려사항(다중응답)

아르바이트 업종 * 성별	(단위 : %)		
	남 성	성	Total
보수	27.8	28.9	28.3
근로환경	18.1	16.1	17.1
근로시간	17.3	18.4	17.8
고용기간	1.6	1.1	1.3
업종	7.5	9.7	8.6
동료또는상사와의관계	2.3	2.9	2.6
적성,흥미	5.6	4.7	5.1
다양한경험축적	5.5	3.2	4.4
장래직업을위한경력축적	1.8	1.0	1.4
쉽고편한근로	5.5	7.2	6.4
출퇴근의용이함	5.0	5.8	5.4
폭넓은인간관계	1.6	1.1	1.4
기 타	0.3	0	0.1
합 계	100	100	100(2119)

[표 11]은 아르바이트 시 고려사항(다중응답)으로 보수가 28.3%, 근로시간 17.8%, 근로환경 17.1%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와 아르바이트 고려사항을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와 고려사항으로 경제적인 측면(용돈 마련, 생활비 마련, 보수 등)의 영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표 10]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의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성별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이유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이유 * 성별	(단위 : %)		
	남 성	여 성	Total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20.3	17.2	18.6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27.8	24.7	26.2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2.5	1.1	1.7
반대 때문에	2.5	19.4	11.6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0	33.3	35.5
기타	8.9	4.3	6.4
합 계	100	100	100

$$= 12.936, d.f = 5, *p < .05$$

[표 12]는 남녀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n=172)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26.2%),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어서’(18.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 응답과 유사하지만,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3.3%, 다음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24.7%),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19.4%) 순으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의 응답에서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함

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부모가 바라보는 아들, 딸에 대한 인식의 반영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업종은 성별($F = 29.821, d.f = 8, *p < .05$), 연령별($F = 77.819, d.f = 32, *p < .05$), 학년별($\chi^2 = 47.839, d.f = 24, *p < .05$), 대학별($\chi^2 = 21.572, d.f = 8, *p < .05$)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분하여 아르바이트 업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의 학생과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았다.

[표 13] 대학별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 %)
아르바이트 업종 * 대학			Total
매장관리 (, 대형마트, PC방, 의류, 화장품, 찜질방, 독서) 서빙·주방	14.9	18.1	16.5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일반주점) 서비스	29.8	35.9	33.0
(영화, 안내데스크, 주차관리, 헤어, 가사 등) 생산·기능	9.4	10.7	10.0
(공사현장, 전단배포, 주유, 청소, 배달, 물류, 기계) 사무·회계	4.1	5.5	4.8
(자료입력, 문서작성, 실험보조 등) IT·디자인	9.6	11.8	10.7
(사이트운영, 컴퓨터A/S, 웹디자인 등) 상담·영업	6.4	2.7	4.5
(고객 상담, 전화주문, 설문조사, 마케팅 등) 강사·교육	2.0	1.4	1.7
(학원, 학습지, 과외 등) 기 타	22.2	12.1	17.0
합 계	100	100	100

$\chi^2 = 21.572, d.f = 8, *p < .05$

아르바이트 업종과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n=707)의 응답을 보면, 우선 전체 대학생의 응답 중 서빙·주방이 33.0%로 가장 높으며⁷⁾, 다음으로 강사·교육 17.0%, 매장관리 16.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아르바이트 업종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은 서빙·주방이 각각 29.8%와 35.9%로 전체적인 응답과 같으나,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수도권 대학은 강사·교육 22.2%로 비수도권 대학의 강사·교육 업종이 12.1%를 차지한 것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회 통념적으로 수도권

7) ,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2012. 대구·경북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평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논집 10권 1호. pp114-115.

대학의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보다 성적 또는 교육 수준 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도 비수도권대학의 학생보다 교육관련 업종을 선택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14] 대학별 아르바이트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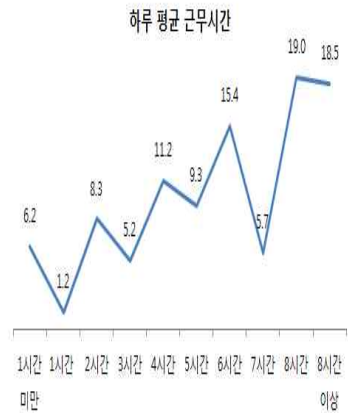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로 * 대학	수도권대학(%)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 등을 통해	1.5	2.1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TV, , 라디오 광고 등)	2.7	2.1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바천국 등)	39.8	53.1
생활정보지를 통해(벼룩시장, 교차로 등)	0.4	2.1
주위 사람(부모님, 친구 등)의 소개를 통해	34.5	28.0
주위 사람(부모님, 친구 등)의 부탁으로	13.0	8.0
길거리 또는 상점의 광고를 통해	4.6	2.4
기타	3.4	2.1
합계	100	100

$\chi^2 = 16.567, d.f = 7,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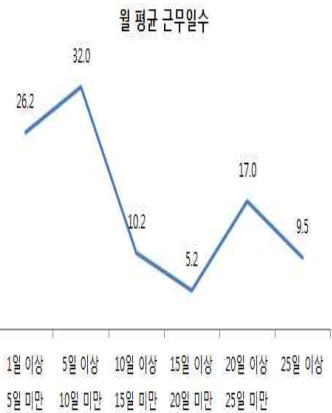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별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경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한 경우가 53.1%로 반 이상을 차지한데 반해, 수도권 대학에서는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도권 대학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반면, 비수도권대학에서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의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수도권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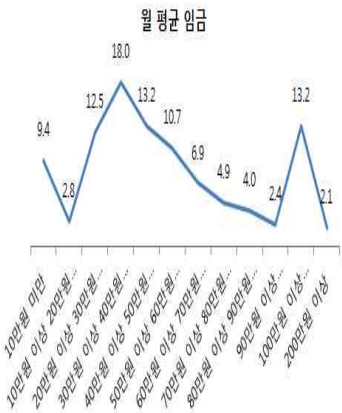
[그라프 2] 하루 평균 근무시간



[그라프 3] 월 평균 근무일수



[그라프 4] 월 평균 임금



[표 15] 관련 변수 및 성별 평균 분석(t-검정)

변수	성별	(명)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하루 평균 근무시간()	남성	304	6.58	3.203	0.184	4.627*
	여성	278	5.38	3.011	0.181	
	Total	582	6.01	3.165	0.131	
월 평균 근무일수(일)	남성	300	12.46	8.797	0.508	5.126*
	여성	277	9.01	7.321	0.440	
	Total	577	10.78	8.298	0.345	
월 평균 임금 (만원)	남성	300	68.34	57.051	3.294	7.195*
	여성	277	40.65	33.093	1.988	
	Total	577	55.07	49.010	2.039	

$p < .05$

[표 15]의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과 성별 평균을 분석해보면, 우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남성이 6.58시간인데 비해 여성은 5.38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아르바이트의 근무시간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월 평균 근무일수 역시 남성이 12.46일인데 비해 여성은 9.01일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월 평균 임금에서 남성의 평균은 68.34만원이며, 여성은 40.6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월 평균 근무일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 평균 임금의 남녀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표 15]의 내용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특성 및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

[표 16] 연령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경험

(단위 : %)						
아르바이트 그만 둔 경험*연령	19~20	21~22세	23~24세	25~26세	27 이상	Total
있 다	65.8	88.0	89.0	81.6	81.8	83.6
없 다	34.2	12.0	11.0	18.4	18.2	16.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24.583, d.f = 4, *p < .05$

[표 17]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다중응답)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	Total
낮은 보수	11.4
열악한 근로환경	8.7
정해진 시간 외 근무	4.7
동료 또는 상사와 불화	3.3
적성에 맞지 않아서	3.6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6
인격 무시	1.8
환경의 변화(개강, 이사 등)	35.5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13.1
주위 사람들의 반대(부모님, 친구 등)	4.8
기타	9.5
합 계	100(665)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83.6%, 그만둔 적이 없는 응답자는 16.4%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1세부터 그만둔 경험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기회가 많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개강이나 이사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그만둔 사람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13%), 낮은 보수(11.4%) 순으로 높았다. 이를 보아 정해진 시간 외 근무, 인격 무시와 같은 부당 처우 및 주위 사람들의 반대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외적 요인보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부당 처우 및 그에 대한 행동 유무⁸⁾

[18] 부당 처우(다중응답)

부당 처우	Total
인격 무시	23.3
임금체불	15.3
업무 이외의 과도한 업무	39.9
중 상해 시 치료비 본인 부담	3.1
언어·신체 폭행	5.2
성희롱	0.3
성폭행	0.3
부당 해고	4.9
차별 대우	7.6
합 계	100(288)

[19] 부당 처우에 대한 행동(다중응답)

부당 처우에 대한 행동	Total
더욱 충성을 다함	1.6
그냥 참고 일함	40.7
그만 둠	29.8
개인적으로 항의	21.7
집단적으로 항의	0.8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	3.9
기 타	1.6
합 계	100(258)

8) , 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오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권0호. pp49-51.

아르바이트에 있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라고 볼 수 있다.⁹⁾ 부당 처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된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당 처우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기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에서 대학생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약속된 업무 이외의 과도한 업무로 39.9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격 무시가 23.3%, 임금체불 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당 처우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는 그냥 참고 일함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그만 두기 21.7%, 개인적으로 항의가 2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있어 부당 처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가 오랜 시간 지속해서 하는 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로서 쉽게 그만둘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도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대처를 취하는데 드는 시간적, 인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현행 노동법에 관한 인지 정도를 파악¹⁰⁾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10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20] 현행 노동법 인지 정도

현행 노동법 내용	(단위 : %)		
	안다		합계 (%)
단시간 근로자	79.9	20.1	100
최저 시급	86.4	13.6	100
시급의 가산	55.8	44.2	100
휴식 시간	36.5	63.5	100
부상 시 보상	68.2	31.8	100
퇴직금 수령의 기준	31.0	69.0	100
근로 계약서 작성	70.4	29.6	100
근로 계약서 기재 내용	59.6	40.4	100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59.6	40.4	100
부당 해고 구제 신청	58.9	41.1	100

[표 21] 현행 노동법 평균

(단위 : 명, 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9) . 알바생 57% “부당 대우땀 참거나 관둔다” . 부산일보. 2015.04.3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501000082>

10) 최혜영,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2012. 대구·경북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평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논집> 10권 1호. pp116-119.

715	0	10	5.776224	2.710648
-----	---	----	----------	----------

현행 노동법의 내용 중 전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응답한 내용은 최저시급 (86.4%)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가장 낮게 안다고 응답한 내용은 퇴직금 수령의 기준 (31.0%)이었다. 현행 노동법의 내용 중 최저 시급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유로는 최근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넣은 광고와 이로 인한 소위 ‘알바몬 사태’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현행 노동법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¹¹⁾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장 적게 알고 있는 퇴직금 수령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바이트가 단시간 근로로서 오랜 시간 지속하려는 목적의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표 22] 현행 노동법 평균 * 부당 처우에 대한 행동

처우에 대한 행동	응답(N)	노동법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하지 않음	255	5.73	2.479	0.155	-2.457*
항의 및 신고	62	6.60	2.492	0.316	

$p < .05$

또한 부당 처우에 대한 행동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항의 및 신고 등의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누어 현행 노동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 않음’에는 더욱 충성하거나 참고 일함, 그만둔 경우를 포함하고, 그 외 개인적·집단적 항의나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경우는 ‘항의 및 신고’로 분류하였다. 현행 노동법에 대한 10가지 항목 중 부당 처우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은 평균 5.73개, 항의 및 신고를 한 집단은 6.60개로 항의나 신고 등 대응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행 노동법을 좀 더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1. 조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는 721명이고, 이를 분석하여 전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전문인적인 연구 자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 자료보다 적고, 선행연구 자료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 기존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분석함에 한계가 있다. 또 본 연구는 전국 13개 대

11) . ‘알바몬 광고’ 논란...알바생들은 피 같은 정보 얻었다. “한겨레신문. 2015.02.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7525.html

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전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대표성 즉, 일반화에 있어서도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질적 질문과 전체적, 구조적인 과정이 미흡하였다.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한계로는 우선 가정의 경제수준을 하·중·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부분에서 연구대상의 SES(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확하고 체계적인 구분이 미흡한 상태에서 평균 수입만을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려 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관하여 전반적 근로 현황 및 현행 노동법의 인지 정도에 따른 아르바이트 연구를 진행한 기존의 연구의 미비로 인해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흐름을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IV. 참 고 문 헌

- 김덕순, 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오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권 0호. pp33-57
- 고관우, 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4권 2호. pp149-168.
- 박현숙, 권혁만. 2009. 단시간 근로자의 실태와 효율적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2권 1호. p51.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2. 아르바이트 관련 보고서.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리서치 보고서> 3호. pp341-384.
- 이대진. 알바생 57% “부당 대우땀 참거나 관둔다.”. 부산일보. 2015.04.3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501000082>
- 조성태, 남진열. 2012.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탐라문화> 41권 0호. pp109-138.
- 최혜영,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2012. 대구·경북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평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논집> 10권 1호. pp111-122.

·
·